

신안, 19~21일 '섬 간재미축제' 개최

신안군은 수국공원 일원서 19일부터 21일까지 '제5회 섬 간재미 축제'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제5회를 맞는 섬 간재미 축제는 신안 1004섬의 수산물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고, 지역민 화합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간재미는 신안지역에서 주낙을 이용해 잡으며 양식 가능 어종이 아니다. 간재미의 이름은 정약전의 '자산어보'의 '간잡어'에서 유래했다. 간재미는 육질이 단단하며 손

질할 때 물로 씻으면 살이 흐물거리면서 맛이 떨어진다. 막걸리로 세계 문질러 닦아 육질을 연하게 만든 후 초고추장과 채 썬 무, 미나리를 넣고 새콤달콤하게 버무려 회무침으로 즐긴다. 간재미의 부드러운 살과 꼬들꼬들한 물렁뼈가 어우러진 식감은 회 무침 중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축제에서는 간재미 껍질 벗기기, 간재미 얇게 썰기 등 참여객의 흥을 돋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신안=김숙복 기자**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 모집

숙박비·교통비·식비·여행자보험 등 다양한 지원

진도군이 진도에서 생활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장기체류 프로그램인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진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는 찾아서 머무는 관광 진도를 널리 알리고 문화·관광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군은 현재 광주·전남에 거주하지 않는 진도 여행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소 사진, 영상촬영을 즐겨하고 누

리소통망을 통해 진도여행 홍보를 할 수 있는 3팀(5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6일(화)까지이고 제출 서류와 함께 전자 메일(jkfoal@korea.kr 또는 우편접수 전남 진도군 진도읍 철마길 25, 진도군청 관광과)로 할 수 있다. 단, 우편접수건은 1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19일에 선정자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완도, 수산인의 날 기념 '1만 마리 치어 방류'



완도군은 지난 12일 완도항 1부두 일대에서 치어(접농어) 1만 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치어 방류는 '제 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7일 완도군에서 개최되는 것을 기념하고 아이들에게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도군이 주최하고 한국수산자원공단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김종남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 김정선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삼호 수산경영인연합회장, 박희준 완도어선연합회

장 및 관내 초등학생 등이 함께 했다. 방류된 접농어는 서남 해역에 서식하는 대표 어종으로 여름철 어업인의 주 어획 품종이다. 이날 '바닷속 이야기'라는 주제로 어린이 사생대회도 진행됐으며 관내 초등학생 100여 명이 참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수산업과 어촌의 가치를 알리는 수산인의 날 행사를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바다와 공존하며 바다를 통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만큼 수산 자원 및 바다 생태계 보전에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청년창업형 후계농 전남 최대 육성

올해 81명 선정...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268명 선발 5억원 한도 창업자금 지원 등 맞춤형 청년농업인 육성

해남군이 해남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14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81명의 청년창업형 후계농을 선정, 청년들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월 90~11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지급하고, 농지·시설을 매입·임차할 수 있는 5억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등을 연계해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부터 만 40세 미만까지의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및 예정자가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2차 모집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전남 최대 규모로, 올해 1차 모집까지 총 268명을 선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 모델을 구축해 우수 청년농업인을 육성과 지원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규 청년농 유입 단계에서부터 기초교육과 컨설팅, 정착지원, 성장에 이르는 지원모델은 진입 유형과 단계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11개 사업에 41억6,100만원을 투입해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한 개별농가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하고, 청년 4-H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사업,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초기 창업 지원 사업,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등 청년 초기창업과 영농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영실습 임대농장 6개소를 조성해 청년들에게 3년간 임대하는 사업은 영농기반과 재배기술이 부족한 초보 청년농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은 스마트팜 시스템을 갖춘 300평 내외의 내재해형 비닐온실을 연간 20만원 내외의 금

액으로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삼산면 봉학리와 평활리 일원에 조성되어 있다. 입주하면 토마토, 시금치, 딸기 등 시설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도 실시한다. 해남군은 청년농업인 교류와 소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들이 농업에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 인구감소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남에 관심을 갖고 정착하는 청년농업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다"며 "해남군의 미래인 청년농업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무안,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 연결 개통

주룡나루~청호침터~죽정천 하류 자전거길 2.2km 연장 조성



무안군은 최근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이 연결(주룡나루~청호침터~죽정천)되어 개통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청호리 구간은 자전거우선도로로 일부 구간이 폭이 좁아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위험에 항상 노출되었다.

이에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노선 변경을 추진하여 국토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국비 72억원 원이 투입되어 2019년 10월에 착공(익산청 광주국토사무소)하였고 2023년 12월에 준공(영산강유역환경청)됨으로써 테크로드 1.27km, 콘크리트 포장 875m의 자전거

길길이 연장(2.2km) 조성되었다. 연결된 구간인 주룡나루~청호침터~죽정천 하류 자전거길 2.2km는 무안군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인수·인계받았다. 영산강 자전거길 청호리 단절구간이 연결됨으로써 상사바위 전설을 안고 영산강의 멋진 전경도 즐기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자전거 이용객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산 군수는 "청호리 구간이 영산강 명품 자전거길이 되도록 시설물 관리와 이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산강 삼백리 명품 자전거길 조성 시 풍탄대교~느리리~함평 동강교 구간도 신규로 자전거길이 포함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문 기자**

목포인재육성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

목포인재육성재단이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5일부터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 분야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의 자립 능력향상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2개의 분야이다.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35명과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15명, 총 5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의 신청 자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모 및 본인 중 1명 이상이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어야 하며, 목포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균 점수(학점 환산점수)가 74점 이상이다. 특히 올해 저소득층 장학금의 수혜 범위와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중 복수혜가 불가했으나, 올해는 법정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해 학업장려금(생활비)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신청 자격자는 공고일(2024.4.22) 기준 2년 이상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사실이 있던 퇴소자로 전문대학, 4년제 대학생(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이다. **목포=김재욱 기자**

영암, 양봉농가·멜론농가 등에 수정 꿀벌 지원

17일까지 신청·접수

(사)한국양봉협회영암군지부와 영암군이, 시설하우스 농가들의 수분작업을 돕기 위해 17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수정 꿀벌 지원 접수를 받는다. 꿀벌은 꿀 생산뿐만 아니라 농작물의 수정을 위한 화분 매개체로서 생태계의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꿀벌은 월동기간에 꿀벌응애류 감염, 이상기온 등으로 개체수가 줄었고, 그 여파는 멜론, 사인머스켓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에 농가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정 꿀벌 지원은 영암군의 중계로 양봉농가가 '과수 생산 및 품질 향상 장비지원사업'의 이름으로 시설하우스 농가와 본격 상생협력에

나선 것. 꿀벌 신청은 영암군 농업경영체 등록 과수 재배농가에서 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양봉농가와 시설하우스 농가의 상생협력으로 적기에 수정 꿀벌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들의 경영 안정 도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2024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2024 Cheongsando Slow Walking Festival

氣 치유가 필요해
청산도를
걸어보

2024. 4. 6.(토) ~ 21.(일)
완도군 청산면 일원

주최 | 완도군 주관 | 청산도슬로걷기축제추진위원회

2024 광소고수산물 축제

2024. 5. 3.(금) ~ 5. 6.(일) | 4일간 |
완도해변공원 일원

잡고, 먹고,
치유하는
청정바다
힐링 페스티벌

주최 | 완도군 주관 | 광소고수산물축제추진위원회